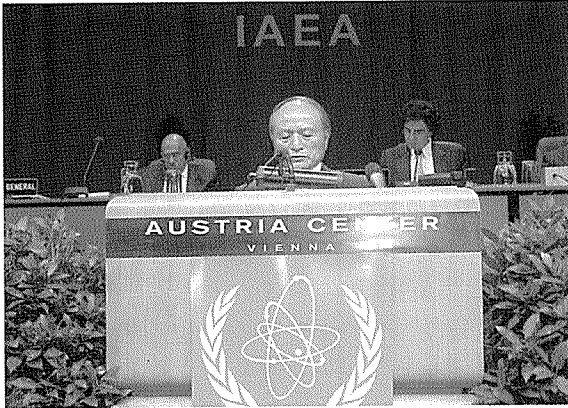


●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오명(吳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제 49차 IAEA 정기총회에서 기조연설

- 138개 참석국 중 4번째 연설 -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은 9월 26일(월) ~ 30일(금)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49차 IAEA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IAEA 총회에는 오명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관계자와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등의 관계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위상제고와 원자력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IAEA 회원국 138개국에서 장관급 등 원자력고위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명 부총리는 138개 회원국 중 4번째 순서의 기조연설에서 지구온난화 방지와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국제 핵비확산체제 강화와 핵투명성 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밝혔다.

한국의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하여 독립기관으로

서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 설립 및 원자력법 개정 중인 현황을 소개하고, ISSAS 등 한국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IAEA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한국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천명한 대로 현재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IAEA 회원국과 NPT 조약국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전운영현황, 원전건설 계획 소개와 함께 한국의 원전운영·건설 기술에 대해 회원국과의 공유를 제안하고, IAEA가 추진중인 아시아원자력안전네트워크(ANSN)에 대해 원자력선도국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회원국의 수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담수화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 IAEA가 기술협력사업으로서 회원국에 지원하기를 제안하여 참여 회원국의 주목을 받았다.

2002년 한국에 설립되어 2005년부터 정상운영 중인 RCA 지역사무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사를 밝히면서 지역사무국의 활성화에 IAEA와 회원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IAEA 이사회의 대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국의 수를 현재 35개에서 43개로 늘이는 것을 규정한 IAEA 헌장 6조의 발효를 촉구하였다.

오명 부총리는 기조연설 이후부터 9월 28일까지 IAEA 사무총장, 미국, 중국, 인도, 알제리 등과 수석대표회담을 갖고 양자간 원자력협력 강화, 원자력 기술 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6차 韓-中 원자력공동(위) 실무협의체 회의 참가

- 양국 협력증진 세부방안 마련 -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오명)는 9월 21일(수) ~23일(목) 3일간 열리는 '제6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실무협의체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단을 중국 북경에 파견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원자력발전, 원자력 연구개발, 핵연료 및 폐기물 처분관리, 원자력안전 그리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등 5개 분야별 세부협약이 진행되어 중국 신규원전 건설사업에 국내업체 참여, 국내 개발 방사성동위원소 중국 수출 등 37개 의제가 협의되었다.

이번 회의를 위해 중국국가원자능기구(CAEA) 향

웨이 국제협력처장 등 10여명의 정부관료 및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한국측은 문해주 주중 과학관 등 11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본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협의된 의제는 과학기술부 차관 및 중국 국가원자능기구 주임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12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될 「제6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에서 확정될 경우, 양국간의 본격적인 협력이 추진될 것이다.

※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는 원자력 평화적 이용 확대 및 양국 협력을 촉진하고자 '00년부터 설치·운영된 한·중 정부간 협의기구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4회 방사선안전 심포지엄 개최

- '방사선 안전의 전망과 지향' 주제로 열려 -

과학기술부가 후원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신원기)의 주관으로 9월 1일(목)부터 이틀 동안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방사선안전의 전망과 지향'이란 주제로 '제4회 방사선안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방사선의 안전증진을 위한 패넬토론과 주제발표 형식으로 개최된 본 심포지엄은 산·학·연·정 및 민간단체 등 250여개 기관에서 관련 전문가 약 5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방사선방호의 기반변화(한양대

이재기 교수)와 '첨단 방사선의료 영상(울지대학교 병원 양승오 교수)'이란 주제의 특별강연과 6개 분과(방사선방호, 방사성폐기물, 방사선환경, 방사선이용, 방사선생산·운반 및 방사능방재)별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9월 2일(금)에는 '방사선안전증진을 위한 혁신토론회'를 개최하여, 방사선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저해되는 것과 상충시키는 요소를 구분하면서 방사선 안전의 혁신 전략을 도출하였다.

제2회 원자력안전포럼 개최

- '원자력안전과 규제에 대한 대중신뢰 확보' 주제로 열려 -

제2회 원자력안전포럼이 지난 9월 6일(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이해를 돕고 안전규제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7월 제1회 안전포럼을 가진 바 있으며, 이번 2회 포럼에서는 '제11회 원자력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원자력안전포럼은 '원자력안전과 규제에 대한 대중신뢰 확보'를 주제로 1부 주제발표(학계, 지역주민, 사업자, 규제전문기관 등), 2부 패넬토론(패넬